



(사)하얀코끼리 봉사단 30여 명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사진은 바고 불교학교 페인트 봉사에 참여한 영배 스님과 델렌트 한혜숙 씨



BG학교 학생들이 하얀코끼리 봉사단을 맞고 있다.



미얀마 방문 학교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만달레이 학교 학생들과 하얀코끼리 봉사단원들.

“미얀마 현지에 귀국 노동자 위한 교육시설 만들겠다”

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 수처 여사 방문



(사)하얀코끼리 이사장 영담 스님(사진 왼쪽)이 3월 1일 아웅산 수처 여사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미얀마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하얀코끼리가 2013년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운영진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처 여사의 자택을 방문했다.

3월 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수처 여사의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직업교육센터 등 미얀마에 지속 가능한 직업 교육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접견에는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동국대 이사), 학담 스님(서울대 이사), 이수덕 참여불교제가 연대 상임대표 등 운영진들이 배석했다.

영담 스님은 수처 여사에게 “미얀마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적응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싶다. 다른 곳보다는 수처 여사가 이끄는 NLD(민족민주연합)와 관련된 복지시설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기술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영담 스님은 동국대 의과대학을 통해 미얀마 병원에 의료 기기나 약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아원 보수 보육 교육개선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수처 여사는 “서울에서 돌아오는 노동자들과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수처 여사는 “아주 좋았고 행복했다. 서울은 매우 인상 깊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따

뜻하게 맞이해줬다. 스포셜 올림픽이 열린 평창도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수처 여사는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지만, 특히 아시아에서 정치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며 “하지만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다. 누

구 한사람, 리더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 또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버지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는 수처 여사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처 여사는 “평화는 단지 지도자나 정부에 기대해서만 안 된다.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평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글로벌 행복 나눔... ‘세계일화’ 가꾼다

(사)하얀코끼리 미얀마서 교육지원 사업 펼쳐

불교 국제구호 NGO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 스님)가 2013년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미얀마 각지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 동안 양곤을 비롯해 만달레이 바간 등의 고아원 불교학교 등을 돌며 교육지원 및 현지 답사를 펼쳤다. 또한 수도 네피도서 아웅산 수처 여사를 면담하면서 향후 구호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하얀코끼리 운영진과 실무진들로 구성된 봉사단의 공식 일정은 2월 27일 양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청년 조직 블러드 그룹(Blood Group)이 지원하는 양곤 고아원은 200여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NLD-BG는 △응급환자 혈액지원 △아동을 위한 인성 및 일반지식 증진 △아동을 위한 미래지도자 양성 교육 △빈곤 실업문제 해결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하얀코끼리는 NLD-BG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방문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봉사단 홍보대사로 참여한 델렌트 한혜숙 씨는 미얀마 유력 주간지 ‘7DAY NEWS’에서 인터뷰를 하는 등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미얀마 방송 4사에는 현재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한 씨는 지난 1월 중순 연골 파열로 오른쪽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봉사단 홍보대사로 참여해 최선의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곳 경제 사정이 1950-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해 가슴이 아프다. 이들을 통해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며 “몸이 아프지만 이곳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니 정신이 맑아진다.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고 전했다.

한 씨는 이번 봉사단 참여를 계기로 봉사하는 삶을 살 뜻을 내비쳤다.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불자로서 이런 사랑을 세상에 회향하고 싶다. 평소 연기자 안성기 김혜자 씨 등 봉사 많이 하는 연기자들이 존경스러웠는데 이번 미얀마 행사를 계기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했다.

한 씨는 이사장 영담 스님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쌀 등을 전달해 주고 점심공양을 도왔다. 3월 2일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 두 번째 방문지 만달레이 야다나아웅미 고아원은 봉사단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잠자리도 식사도 너무나 열악한 시설에서

182명의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고아원 대표 메이타운파 스님은 “젓이나 우유가 없어 5세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앞으로 지속적인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한혜숙 씨 홍보대사 참여 ‘주목’

‘하얀코끼리’ 미얀마 교육지원 시작
지속적으로 국제 구호 실천 계획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엔지니어가 꿈인 고아원생 12살 아원은 “한국 스님들을 처음 보는 데 반갑다”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세 번째 시설 방문지는 바고의 유스 폰찬코네 파라타 하우스로 이곳은 고아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장 아신난다야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공부를 하고 싶어도 5학년 정도가 되면 돈 벌러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이곳에 학용품 및 쌀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과 함께 교실 페인트칠 봉사도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하얀코끼리 운영진 영배 스님은 “세계 일화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 한다”며 “하얀코끼리가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라며 봉사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하얀코끼리 봉사단은 3월 6일 바고 고아원 일정을 마지막으로 3월 7일 귀국했다. 이사장 영담 스님은 “앞으로 미얀마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네팔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구호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설의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미얀마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에 방문한 시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만달레이 고아원 시설 보수의 첫 번째 사업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사)하얀코끼리 농협은행 301-0123-5587-31 문의전화 1899-1208

미얀마=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개정판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1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4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추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